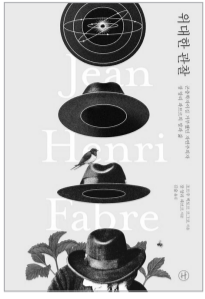


파브르가 들려주는 자연과 인간 공존의 메시지

위대한 관찰

조르주 빅토르 르그로 지음
김숨 옮김



장 앙리 파브르(1823~1915). 대부분의 독자들은 초 등시절 축약본 '파브르 곤충기'를 접했지만 정작 파브르라는 '우주'나 다름없는 그의 학문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신간 '위대한 관찰'은 파브르의 제자가 1913년 출간한 '박물학자 파브르의 생애: 한 제자로 부터'를 번역한 것이다. 정치인이자 의사인 저자는 46살 때인 1907년 여름, 세리냥에 있는 파브르의 자택이자 연구실 '아르마스'(Harmas)를 방문해 당시 84살이던 파브르의 제자가 됐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6년 뒤 '파브르 곤충기' 등 주요 저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인용하고 편지, 동생에게 제공받은 가족 기록 등을 종합해 생명의 경이로움을 밝히는데 온 생애를 바친 파브르의 연구철학과 발자취를 정리한 전기(傳記)를 썼다. 신간은 '곤충학자이길 거부했던 자연주의자 장 앙리 파브르의 말과 삶'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장 앙리 파브르(1823~1915)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관찰자', 생명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자연주의 철학자'였다. 자택이자 연구실인 '아르마스' 책상에서 집필하는 87살(1910년)때의 파브르. <위키미디어 커먼즈 제공>

까지 파브르의 일관된 92년 생애를 시간 순으로 들려준다. 그는 식물학·동물학 박사이자 저술가, 시인, 교사, 교육운동가였고, 한때 시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청소년을 위한 자연사(史) 교과서를 10여 년 동안 공들여 집필하기도 했다. 파브르는 자신을 곤충학자가 아니라 부인했고 박물학자(생물학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는 '진정한 자연주의 철학자'이면서 '위대한 박물학자', '심오한 관찰자'였다. 찰스 다윈은 '종(種)의 기원'에서 파브르를 '아무나 흉내 내지 못할 관찰자'라고 묘사했다. 특히 56살부터 84살까지 30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총 10권으로 완결한 '파브르 곤충기' 총서 맨 마지막 단어를 '자, 계속 일을 하자'(Laboremus)로 마무리할 정도로 열정적인 '일벌레'였다.

저자는 '은둔자의 도피처'인 파브르의 '아르마스' 일상생활과 함께 다양한 곤충들의 연구 성과, 나아가 곤충세계에서 발견한 자연주의 철학에 대해 심도 깊고 폭넓게 풀어낸다. 비록 110여 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파브르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통찰력, 그의 인생과 말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여전히 묵직하고 유효하다. 늑대거미와 전갈의 행동패턴을 연구한 파브르는 이렇게 말한다.

"햇빛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생명체가 더는 서로를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총돌 없이, 전쟁 없이, 노동 없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고 모든 필요가 반드시 충족될 것이다!"

요즘 지구 온난화와 함께 기후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다. 더욱이 비 수확 절을 앞두고 벼멸구 피해가 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하찮은 미물(微物)이라 여겨온 곤충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신간 '위대한 관찰'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장 앙리 파브르가 남긴 자연주의 철학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남긴 저술, '자연의 경전'을 다시 살펴봐야 함을 일깨운다. <휴머니스트·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운 책

▲**읽을수록 빠져드는 교양 생물=**생명의 기본 특징부터 물질대사, 유전자와 그 작용까지 생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소개한다. 개체군과 이종 간의 관계, 식생과 물질수지 같은 생태·환경적 이슈는 물론 식물의 일생과 유기물의 체내 환경, 생식 세포가 만들어지는 단계나 대사의 기본적인 과정을 알려준다. PCR 법의 흐름이나 모식도와 같은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 생물 관련 지식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그마북스·1만8000원>



▲**인형의 주인=**사이코패스 소년의 내면을 1인칭으로 그린 동명의 표제작, 미국 백인주의 사회의 우월주의를 다룬 '군인' 등 여섯 편 단편이 수록됐다. 유년 시절에 겪었던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을 그린 '총기 사고', 국제세일러 작가상을 수상한 '빅마마' 등 환상적이고 섬뜩한 이야기들이 수록됐다. 인간 내면에 깃든 불안과 공포를 소설적 상상력으로 파헤친다. <현대문학·1만8000원>

▲**중요의 역습=**인간의 중요가 어떻게 타인을 비롯해 자신을 파괴하는지 분석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중요 문제를 겪는 내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노심에 전복되지 않는 삶과 공동체 정신을 환기한다. 중요를 극복하는 방법을 10가지 단계로 제안하며, 디지털 시대에 파괴적인 네트워크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준다. 40년 임상경험과 500여 명 범죄자를 프로파

일링한 경력, 수천 시간 인터뷰를 토대로 폭력의 골격을 끊는 법을 제시한다. <책사람잡·1만7800원>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1945년 5월 나치가 항복한 지 사흘 뒤, 소모전이 계속되던 과학자와 군인들은 폭탄을 교토로 떨어뜨리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핵폭탄 리플을 보이는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됐다. 교토 여행자 스티븐슨은 폭탄 투하를 앞두고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애착 도시가 된 교토를 파괴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한다. 이처럼 우발적 결정이 운명을 바꾼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우연이 빛을 세계사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본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하얀 선물=**북극곰 바오는 토도 할머니와 따뜻한 남쪽 섬에 산다. 바오가 북극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자 할머니는 북극 대신 눈을 보여주기 한다. 시원한 눈 놀이와 빙수를 통해 아름다운 눈을 알게 된 바오는 북극에 대한 환상을 품는다. 그러나 잠시 한눈판 사이 맛있는 빙수가 사라졌다. 바오와 토도는 식탁 밑에 숨어 빙수 도둑을 찾기 위해 '잠복'을 시작한다. <책읽는곰·1만5000원>

▲**아가미 소년=**필 패드와 블루 패드라는 인공 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미래 인류의 이야기를 그렸다. 변종 인류인 아가미족 소년 주인공 시각에서, 환경 및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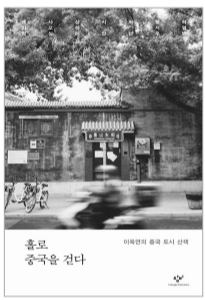
문제에 대한 인간들의 이해관계를 포착한다. 순수한 어린이 시선을 통해 바라본 어른들은 소통과 이해보다 다름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지북·1만5000원>

▲**발명, 세상을 바꾼 기발한 생각들=**다양한 도구의 탄생부터 발명, 기술의 개발까지 '발명'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순수한 과학 질문을 통해 발명가들의 생각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영화의 탄생, 여자 발명가, 발명의 실패와 성공 등에 얽힌 흥미로운 문답이 이어진다. <보고북스·1만4000원>

베이징부터 하얼빈까지...사람의 무늬를 읽어내는 산책

홀로 중국을 걷다

이육연 지음



중국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에서 서 쓴원의 흔적을 만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한다. 영국이 만든 서양식 공원인 상하이 황푸공원은 '중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시위한 발차기로 날려버린 영화 '정무문'의 이소룡을 떠올린다. 위화가 삼았던 자싱시 하이엔을 걸으며 소설 '인생' 속 주인공의 삶을 현재에 대입해 보고도 한다.

방송,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중국의 진짜 모습을 전해주는 이육연(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의 새 책 '홀로 중국을 걷다-이육연의 중국 도시 산책'은 베이징부

터 하얼빈까지 중국의 일곱 도시를 걷은 기록이다. 그는 역사, 문학, 음식, 영화, 건축 등을 통해 중국의 숨은 매력을 들려준다.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보다 사람의 발걸음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 문학과 역사, 철학 같은 인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좋아하는" 그에게 중국을 홀로 걷는 것은 "적당히 새롭고, 적당히 낯설고, 적당히 긴장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에게 돌아가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저자는 역사 속 인물들의 흔적을 따라 길을 걷고, 영화와 소설 속 주인공들을 찾아 나선다.

루쉰 산문 선집 '아침 꽃을 저녁에 줘다' 등을 번역한 저자에게 루쉰의 고향 사오싱은 "마치 수묵화 한폭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드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의 생가 주변을 걸으며 언제나 권력자에게 단호했던 저항적 지식인의 면모를 떠올리고, 고장을 대표하

는 명주(名酒) '사오싱주'의 향기를 맡는다.

더불어 마오쩌둥, 공자 등 중국의 인물 뿐 아니라 이효석, 심훈 등 국내 문학인들의 흔적도 함께 찾아나선다. 또 정신 승리의 대가 '야구'와 '허삼관' 같은 소설 속 주인공과 영화 '붉은 수수밭'의 인물들도 그의 길동무가 된다.

홀로 걷는 여행이었지만, 때때로 함께 걷기도 했다. 베이징에서 공부하던 시절, 지금은 세상을 떠난 문학평론가 김윤식, 소설가 박완서와 루쉰 생가, 1930년대 말 백철, 노천명, 김시량이 머물렀던 조선인들의 합숙소 북경변점 등을 찾은 일은 그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저자는 "진정한 인문여행이란 지식을 축적하는 여행 길이 아니라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은 여행길"이기에 "자신만의 보폭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 사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창비·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